

전투기 비상출격... 남북 군사긴장 최고조

'진돗개 하나' 발령...연평도 주민 긴급대피 李대통령 안보장관회의 “추가도발엔 응징”

23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로 서해 5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2시34분부터 2시55분까지, 오후 3시10분부터 4시42분까지 해안포와 곡사포 100여발을 연평도와 인근 해상으로 발사하는 전례 없는 도발을 감행, 해병 2명이 숨지고 민간인 3명을 포함해 1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가족과 시설물도 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즉각 포를 발사한 북한의 진지에 K-9 자주포 80여

발을 발사하며 대응, 1시간가량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은 이날 사격 도발에 앞서 오전 8시20분에 우리측의 사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전통신문을 보내왔다. 우리측이 항행통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군 당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군 당국은 서해 5도 지역에 국지도대 대대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으며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

했다. 공군의 KF-16 및 F-15K 전투기는 서해 5도 지역을 향해 비상출격했다. 북한은 오후 3시42분 사격을 멈출 때까지 100발 안팎의 해안포와 곡사포 등을 발사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되고 있다. 우리 측은 오후 3시50분 남측 정장급회담 대표인 류제수 소장(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로 북측에 “추가 사격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전통신문을 보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오후 3시40분부터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연합위기관리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5시55분 남북 장성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 후에도 계속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숙의했으며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추가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유엔헌장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유엔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우리측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측 영토를 직접 포격하는 강력한 군사도발을 자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3일 오후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영토에 포탄을 떨어뜨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호국훈련에 대해 북측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해안포 공격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이 이처럼 엄청난 도발을 자행한 배경에는 일단 남북 관계와 대미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리측 농축시설 공개라는 ‘조감수’에도 한미 양국이 종전의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군사적 도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책임연구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난 등 내부 문제의 다급성이 반영된 도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해도 우리 정부가 계속 무대응으로 나가자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돌파구를 만들려는 속셈인



■ 북 무력도발 왜?

대미관계 교착국면 흔들기

김정은 권력승계체제 불만 희석 포석도

북한이 23일 오후 연평도를 해안포로 공격한 것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영토에 포탄을 떨어뜨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호국훈련에 대해 북측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해안포 공격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이 이처럼 엄청난 도발을 자행한 배경에는 일단 남북 관계와 대미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우리측 농축시설 공개라는 ‘조감수’에도 한미 양국이 종전의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군사적 도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책임연구원은 “우리 정부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6자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난 등 내부 문제의 다급성이 반영된 도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해도 우리 정부가 계속 무대응으로 나가자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돌파구를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들어 북한을 방문한 미국 핵전문가들에게 북측이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영수 교수는 “국제적 쟁점인 북한 핵문제(NLL)를 건드려야 미국이 따라들어온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미국을 대외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 주민 결속을 카드로 군사적 위기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고려대 유희열 교수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내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강경한 군사적 대응으로 위기를 조장해 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리더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 수심 발의 포탄을 발사한 23일 오후 연평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 북포격 시간대별 현황
- ▲ 8시20분 = 북측 호국훈련 사격중단 전통신문 발송
 - ▲ 10시 = 남측 호국훈련 차원에서 사격훈련 개시
 - ▲ 14시34분 ~ 14시55분 = 북측 해안포 수심 발 발사
 - ▲ 14시50분 = 남측 대응사격하면서 진돗개 하나 발령
 - ▲ 15시10분 ~ 15시42분 = 북측 해안포 수심 발 발사
 - ▲ 15시50분 = 남측 사격 중지 촉구 전통신문 발송
 - ▲ 15시40분 ~ 16시 = 합참 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회상 회의

백악관 “北 호전적 행동 강력 규탄” AFP “한국전 후 가장 심각한 사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 사실을 톱기사로 신속히 전하면서 북한이 도발한 배경 및 향후 세계 정세에 미칠 영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근로감사의 날 휴일을 맞아 휴식을 취하다가 북한의 포 사격 사실을 보고받고 오후 4시45분께 총리실로 긴급 출근해 내각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

전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국군의 대응 포격 등 연평도 교전 상황과 관련 오후 3시20분 총리관저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 사격을 한 것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유

관 보도를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방송,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과 독일 슈피겔, 영국 BBC방송, 일본 NHK방송, 아사히신문, 중국의 CCTV와 신화통신 등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연평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올리는 등 관련 소식을 실시간 보도했다. AFP 통신은 북한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전하면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해안포 발사 이후 남북한 교전이 1시간 동안 지속하다 멈췄으며 지난 수년간 남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글에 연계된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북한 도발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의 글들이 오후 3시 이후 실시간으로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일정 울스톱...北도발 한목소리 규탄

여야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국회 의사당정을 중단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나라당은 최고위를 열어 합참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상황을 보고받은 뒤 긴급의총을 개최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와

의총을 잇따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서울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손 대표는 긴급히 국회로 돌아왔다. 손 대표는 “북한은 한반도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2011년 1월”

무안공항 출발 전세기 취항

컨티넨탈 항공 / B737-800 / 152석(비즈니스 13석)

태국 치앙마이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의 중심
순수한 자연의 세계

출발일 2011년 1월
5일, 9일, 13일, 17일, 21일, 25일

- ★ 골든 트라이앵글 3개국 (태국/미얀마/라오스)관광
- ★ 치앙마이 관광&골프 72홀
- ★ 치앙마이 골프 99홀
- ★ 고품격 3개국 관광&골프 72홀
- ★ 전 상품 NO-TIP

관 광

다이나믹한 해양스포츠의 천국
골퍼들의 낙원

출발일 2011년 1월
6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 ★ 광 관광 & 휴양 4일
- ★ 광 PIC GOLD 4일
- ★ 광 레오팔레스골프 4일
- ★ 고품격 골프 4일
- ★ 온워드골프 4일

LOTTE JB Travel & Life

광주 롯데마트	062.973.9114
첨단점	062.376.1455
상무점	062.676.0085
월드컵점	062.953.5151
광주수완점	062.953.5151
롯데백화점	062.223.5588
광주점	061.643.6077
전남	061.684.1117
여수점	061.643.6077
여천점	061.684.1117
전북	
롯데마트	063.282.2626
전주점	063.465.8200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2980

이 협찬

Continental Airlines 컨티넨탈 항공

Guam Visitors Bureau
괌 정부 관광청 한국사무소

태국관광청

WOOLIA 우림